

# 刊行辭

大丞公께서 高麗太祖로부터 柳姓을 下賜 받으셔서 起家하신 후 그 後孫들은 高麗와 朝鮮 兩朝를 거치는 千餘年 동안 國家와 民族의 發展에 크게 貢獻해 오셨습니다。高麗史에 그 이름을 드러 내신 분으로서는 清廉 謹慎하고 文章이 뛰어나셨던 文簡公(諱公權)을 비롯하여 高麗後期에 權臣의 專橫을 꺾고 王權을 회복시켜 朝廷의 紀綱을 바로 잡으신 文正公(諱墩)이 계셨습니다。이 밖에도 至極한 孝誠과 禮道로 온 國人的 師表가 되신 貞慎公(諱陞)、剛毅 嚴正하신 章敬公(諱墩)、正直 清廉하신 文化君(諱鎭)등 여러 先祖들의 行績은 麗史에 燦然히 빛나고 있습니다。그 후 朝鮮朝에 들어와서도 우리 柳門은 수 많은 人材를 輩出하여 國家와 民族의 發展에 크게 寄與하였던 것입니다。高麗와 朝鮮 兩朝에 걸쳐 우리 家門이 융성하고 子孫이 繁昌함에 따라서 先祖累代에 걸쳐서 쌓여진 德業을 追慕하고 이를 계승하여 後孫에게 빛나는 傳統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族譜의 編纂刊行이 절실히 요청되었습니다。이에 良度公(諱穎)께서 世宗五年(1423)에 우리 朝鮮 歷史上 最初の 族譜인 永樂譜를 編纂하셨는데, 哀惜하게도 이 永樂譜는 現存하지 않고 그 序文과 함께 世宗의 命에 의하여 지어진 九月山別曲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그로부터 140年の 歲月이 지난 후 明宗 17年(1562)에 僉正公(諱希潛)께서 人心을 抱攝하고 風俗을 淳厚하게 하려면 根本을 所重히 여기고 義理를 밝혀야 한다는 名分에서 同源分流의 記錄인 譜를 編修하여 同宗間에 孝悌相敬하는 氣風을 振作시키고자 嘉靖譜를 펴내셨습니

다. 그 후에도 良度公과 僉正公의 기록하신 뜻은 子孫代代로 통하여 綿綿히 繼承되어 永樂譜가 編纂된 이후 近五百여년동안 嘉靖譜를 비롯하여 己巳譜(肅宗十五年.. 1689) 庚申譜(英祖十六年.. 1740) 乙酉譜(英祖四十一年.. 1765) 丁巳譜(正祖二十一年.. 1797) 甲子譜(高宗元年.. 1864) 丙寅譜(1926) 甲寅譜(1974) 丙辰譜(1976) 등 무려 십여 차례에 걸쳐서 大譜가 編修 刊行되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늘 崇祖睦宗이라는 修譜의 根本精神은 변함이 없었으나 時代의 變遷과 그때마다의 상황에 따라 修譜方法에 있어서는 多少의 差異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특히 丙寅譜와 甲寅譜를 編纂한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에는 漢字教育의 空白期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多數의 後孫들이 純漢文의 譜冊을 解讀할 수 없으므로 한글과 族譜를 刊行하자는 意見이 強力히 대두되어 한글과 世系譜의 刊行을 企劃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事業은 數年間이나 그 착수가 遲延되어 왔읍니다. 그러던 중 大宗會館建立計劃이 성숙되어 이 사업은 또 다시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한글 수보사업은 잠시 지연 되었읍니다만 僉宗들의 正성어린 後援에 힘입어 지금 大田市 柳川洞에는 地上 4層 地下 1層 300여평 規模의 現代式 建物인 大宗會館이 그 웅장한 자태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大宗會館이 完工됨에 따라서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世系譜事業도 비로소 그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었읍니다. 우리의 오랜 숙원이던 한글 世系譜는 會館建立을 紀念하기 위하여 僉宗께서 誠出하신 誠金錄을 결하여 世系譜의 形式에 따라 先系를 밝히고 한글을 병서하여 그 내용의 世傳을 期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文獻編에서는 그동안 大譜 派譜 등의 文獻錄에 거듭 登載되

어 이미 널리 알려진 先代 文獻은 다시 수록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追先錄을 수록함으로써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으신 先祖의 遺德을 살피는데 이바지하고자 하였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적지 않은 遺漏는 물론 懸吐에도 時間관계로 미숙함이 많을 것인바 많은 諒解와 叱正을 바랍니다. 그밖에 여기에 수록된 祭禮의 祝文・記 등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의례준칙이 國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연히 이를 따라야 할 것이나, 禮出於情이라는 우리의 전통적 儀禮원리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약간의 文例를 수록하였으니 우리 門中의 儀禮統一을 위하여 다같이 그 實行에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각종 譜冊이 대부분 巨帙인데다가 難解하여 자칫 死藏되기 쉬웠던 때에 비추어 이번 우리 한글 世系譜는 五卷으로 압축되고 양장으로 제본하여 다루는데 편리하도록 하였읍니다. 삼가 座右에 모셔두고 간간히 奉覽하여 親親의 情誼를 돈독히 하시와 先祖의 유덕을 빛내는데에 一助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檀紀 四三 一七年甲子一月 日 大丞公 三十一世孫 根 榮 謹記

檀紀 四三 一七年甲子一月 日 大丞公 三十一世孫 根 榮 謹記

## 刊行後記

悠久한 人類歷史의 흐름에 따라 社會構造는 날로 變遷하고 洋風潮流로 基因하여 道德은 勿論  
 이오 氏族史에 對한 認識이 漸漸 稀薄하여져 가는 것이 現世代의 實態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名  
 門巨族의 家統을 繼承하여 태어난 大丞公의 后裔로서 오늘의 世態를 熟慮할 때 어찌 流俗을 쫓  
 아 그 燦然한 譜牒을 奉安할 수 있는 榮光을 暫時인들 忘却할 수 있겠음니까? 祖上의 거룩한  
 血統을 이어 받은 子孫들의 運命으로서 連綿히 昌盛하는 生命力으로 崇祖 敦睦 育英하는 가운  
 데에 時代를 超越하여 國家와 民族社會에 貢獻하고 있는 우리 文化柳氏는 그 어느 氏族보다도  
 自尊과 矜持를 意識하고 있기에 近代思潮에 알맞는 世系譜를 家家戶戶마다 모셔야 하겠다는 當  
 爲性이 僉宗의 宿願이었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릇 民族은 氏族의 集團이요 系譜는 氏族  
 의 歷史이니 卽 自己 家門의 血統來歷을 體系化한 聖스러운 記錄임으로 子孫萬代에 傳承할 尊  
 嚴하고 貴重한 家寶로서 所重히 保全하여야 名族의 道理임에도 不拘하고 自體가 純漢字로 編著  
 되어서 非現實的 價値없는 固陋한 古書籍으로 看做하는 傾向이 있어 慨嘆치 아니 할 수 없습니  
 다. 甲寅大譜와 丙辰增譜를 出刊한지 不過 몇年이 되지 아니 하였지만 本枝分派의 昭詳한 系統  
 과 寸數 計寸에 便利하도록 하고 各宗親의 住所를 記載하여 分布 現況을 明示하며 開卷一覽에  
 一目瞭然하여 孝悌之心과 愛族之誼가 油然而興起케 하며 누구나 理解할 수 있는 略譜로 簡素化하  
 여 刊行할 必要性이 있었으나 너무 尨大한 일이어서 介意치 못하였는데 이번에 世系譜를 國漢으

로 並書하여 系圖式으로 發刊하게된 動機는 會館建立에 對한 基金調達에 目的을 두었고 宗議에 依하여 系譜編纂에 臨하게 되었읍니다. 이에 앞서 大田市 中區 柳川一洞 三〇一의 一三號 垞地 百餘坪을 買入하여 두고 會館을 建立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隨伴되는 建築費 二億餘원을 調達하는 것이 第一 問題이었읍니다. 每年 大宗會의 總會와 理事會에서 十餘次에 亘하여 會館建立 方案을 講究 論議 하였으나 實效를 見우지 못하다가 庚申年 七月 理事會에서 會長團의 發議에 의하여 鳩首 托의한 결과 生存한 宗親 男女老少 二十餘萬에 一名當一金 壹千원의 (單金) 義務誠金으로 釀出하고 篤志宗員의 特別誠金으로 會館建立 基金調成에 充當 하는 것이 最善의 方法이라하고 方案策을 提示함에 滿場一致로 贊成하여 議決 通過되었던 것입니다. 天佑神助하고 英明하신 祖上의 保佑하신 靈力으로 追遠 敦宗事業과 爲孫 育英事業을 振作할수있는 文柳會館을 宗親諸賢의 爲宗奉仕의 精誠어린 聲援協調와 委員長 根榮宗丈을 비롯하여 副委員長 雄烈 本部長 寅範 總務 志昌宗의 周旋과 震烈宗의 監董으로 順調로히 現代式 五層建物이 竣工되었고 兼하여 世系譜 亦是 齊聲合力으로 秋毫蹉跌없이 洋裝 五卷一帙로 完刊되었거니 마침내 賢宗諸位 께서 바치게 되었음은 偶然한 일이 아니고 先祖의 偉訓과 遺蹟을 裔孫이 다 같이 奉覽하여 배우고 알아서 先代의 行하고 가르치심이 그 무엇이였으며 또 子孫으로서 꼭 해야 할 道理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認識하고 社會와 國家發展에 더욱 奮發하여 이바지 하고 忠誠과 孝道로써 家道를 바로 잡아 훌륭한 精神遺産이 千秋萬代에 曙光이 되도록 祖上이 默示하심입니다. 이번 世系譜는 歷代 編譜法을 完全히 超越하여서 새로운 制度形態와 血統系圖로 編修하였고 五十餘年前 辛

未에 初刊行한 追先錄을 懸吐하고 王朝實錄과 國朝榜目 및 其他 諸 文獻을 參照하여 簪纓錄을 補完하였으며 各種 參考 要覽等を 附錄으로 拔萃 編輯하였습니다. 人間에게는 恒常 時間과 經費와 制限이 뒤를 따르기 마련이어서 遺憾스러운 것은 全宗親을 糾合하여 譜에 收錄되기를 願하였으나 在北 宗親은 時運이려니와 經費에 拘礙받고 時間에 쫓기어 萬不得已 京鄉各處의 宗親部分이 宗議에 參與치 못한 餘韻의 恨을 남기고 滿四個 星霜만에 世系譜 出版을 告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文化 柳氏 世譜는 代代로 傳承하여 先德을 闡揚하고 家風을 繼述하니 孝悌의 義理를 自期하여 文運이 隆盛하고 教化가 遠達하여 行道燦然한 眞髓登載로서 不可無한 吾族 唯一의 宗族史로 萬歲不朽의 寶鑑이 되기를 바라오며 따라서 今般 世系譜는 祖上의 傳旨와 后孫들의 推仰 欽慕하는 彈誠으로 凝結되어 刊行完遂 되었다고 自負하는 바입니다. 編修課程에 있어서 校正으로 不撤晝夜 心力을 傾注한 綜鉉宗과 各宗中 諸賢의 物心兩面으로 致誠奉仕한 勞苦에 衷心으로 感謝를 드리오며 時日이 促迫하여 蒐輯에 萬全을 期하지 못하여 疎漏한 點이 많음을 自認하오니 寬容하시어 惠情으로 誤謬部分을 叱正 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삼가 略書 顛末 하나이다.

大丞公誕降 壹千壹百五年 甲子 一月 某日 大丞公 三十二世孫 秉薰 謹記

大丞公誕降 壹千壹百五年 甲子 一月 某日 大丞公 三十二世孫 秉薰 謹記

# 文化柳氏追先錄

一上序

古傳云靈芝無根하고醴泉無源하고豈有是理也리오愚는以爲根固則其葉必茂하고源深則其流必長이다惟我先祖大丞公은德業之盛으로創基於勝國之初하야施惠於邦國하고垂裕於子孫하야賢相良將과名卿奭輔와鬼勲鴻藻가繼世而出하야大鳴當時하고轉至하야我朝하야有覺其德이宛然復興하야分爲十五派하야各祖其祖하고父父子子孫孫이莫不有文蔭武三班之秩과忠孝烈三綱之行하야世不乏書하고家無不存하야章章然炳炳然하야煥明于一世하야猗歟盛矣로다謹按江南譜하야則乃是王排助之所傳也라嗚呼異哉라其源이出自軒轅姬氏하야自軒轅으로至崇伯四世에而傳于姒氏하고姒氏十世에而傳于王氏하고王氏相系五十七世에而傳于車氏하고車氏相系三十二世에而傳于柳氏하야卽公之五世以上則源派之深且遠하야而培養其根을由此可知也라至於公之九世孫하야始六貫分派하야曰文化曰豐山曰瑞山曰善山曰全州曰晋州라其雲仍이亦麗億也라皇明于學士가所謂東國之柳를不下晋之王謝唐之崔盧云者하야不亦宜乎아往在丙寅에鎮川杏林精舍修譜時에見聞淺薄하야未克遠慮하고且卷帙浩多하야諸單事行을未能盡載에尚有諸族之遺憾이라是以로更設續刊하야幸茲抱單遠來者亦多하고裁單付郵者不少하야而祇候使公派寅鎬가編輯而校讎하고忠景公派寅幸寅赫이主管

而印刷<sub>하</sub>於<sub>는</sub>是<sub>는</sub>焉<sub>는</sub>向<sub>은</sub>所謂<sub>은</sub>必<sub>는</sub>茂<sub>는</sub>必<sub>는</sub>長<sub>는</sub>之<sub>는</sub>驗<sub>은</sub>。若<sub>는</sub>合<sub>는</sub>符<sub>는</sub>節<sub>은</sub>也<sub>는</sub>否<sub>는</sub>乎<sub>는</sub>。

<sub>은</sub> 恠<sub>는</sub>

尚<sub>은</sub>歲<sub>는</sub>在<sub>는</sub>辛<sub>은</sub>未<sub>는</sub>夏<sub>는</sub>。太<sub>는</sub>師<sub>는</sub>三<sub>은</sub>十<sub>은</sub>一<sub>은</sub>世<sub>는</sub>孫<sub>은</sub>秘<sub>는</sub>書<sub>는</sub>丞<sub>은</sub>寅<sub>은</sub>哲<sub>은</sub>謹<sub>은</sub>記<sub>는</sub>。



